

북한난민

- 002 ... 재외탈북자문제의 심각성
- 004 ... 탈북자문제 세계가 나서고 있는데...
- 006 ... 탈북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자
- 008 ... 감옥으로 몸을 피하는 사람들
- 010 ... 대문 앞의 빵과 물
- 012 ... 사선(死線)을 넘는 사람들
- 014 ... 거덜나는 재중 동포 가정
- 016 ... 동포의 정(情)
- 018 ... 北의 옥문을 부순 사람들
- 020 ... 탈북수기의 또 하나의 효용
- 022 ... 재중 북한 고아들
- 024 ... 재중북한고아를 돕자
- 026 ... '양의 법'과 '하늘의 법'
- 028 ... 탈북자 7인사건의 파문
- 030 ... 탈북자 7인사건의 파문 (속)
- 032 ... 우리는 왜 북한 난민을 돕고 있는가
- 034 ... 투먼구치소 폭동사건
- 036 ... '우리아이들' 이야기 ①
- 038 ... '우리아이들' 이야기 ②
- 040 ... 재중 탈북청소년과의 대화
- 043 ... 인권위치의 재중 북한난민 보고서
- 045 ... 세 탈북소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자
- 047 ... 두 소녀의 목숨을 구한 25만원
- 049 ... 반가운 일, 서운한 일
- 051 ... 끝나지 않은 한반도 여성의 수난
- 053 ... 진상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 055 ...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보고나서
- 057 ...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 059 ... "한국은 양심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 061 ... 대통령의 탈북자 사랑
- 064 ... UNHCR의 탈북난민보호
- 067 ... 교포2세들의 탈북자 사랑
- 069 ... 北에서 천대받는 국군포로의 후손들
- 071 ... 탈북난민에 대한 캐나다 의원의 관심
- 074 ... 김은주 양의 눈물 어린 호소
- 076 ... 쥐약 봉지를 버리는 탈북여성
- 078 ... 2013년의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
- 080 ... 이어지는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
- 083 ... "밥보다 자유 때문에 탈북"
- 085 ... 2015년의 기적: 북한난민 구출 100명을 넘기다!

재외탈북자문제의 심각성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북한탈출'은 남북한이 분단된 후로 줄곧 이어져온 현상이긴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탈출동기와 탈출경로가 종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새로이 탈북자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이들 탈북자가 식량난·체제에 대한 환멸 등을 탈출동기로 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탈출경로도 다양하다. ①휴전선 월경 ②해상 탈출 ③공중 탈출 ④월강(압록강·두만강을 건너는 것) ⑤시베리아 벌목장 이탈 ⑥해외근무지·출장지·여행지 이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탈북자가 직접 한국으로 탈출해오거나, 제3국으로 탈출한 후 법적절차를 밟아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는 이들을 귀순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탈북자란 귀순자보다 넓은 개념인 것이다.

재외 탈북자 모두가 귀순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순했을 경우

북한에 두고온 가족들이 당하게 될 박해가 걱정돼서 제3국에서 소리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박한 꿈은 북한 요원들의 추적으로 번번이 깨지고 만다.

탈북자들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에는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 공관 이외에도 각가지 명목의 북한기관이 진출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상당수는 보안요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들이 탈북자를 색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송환하는 양상도 비인도적이어서 '철사로 탈북자의 코를 꿰어 끌고 간다'고 연변 조선족들은 전한다. 안승운 목사 사건 이후로는 북한 요원이 직접 체포에 나서지 않고 중국 공안당국에 탈북자의 소재를 알려준 다음 넘겨받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CIS 각국에서 숨어지내고 있는 탈북자의 형편도 중국보다 나을게 없다. 시베리아 벌목장을 이탈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각지를 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붙잡히는 날에는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북한으로 끌려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즉시 살해당하기도 하는데, 3년전 모스크바 시의회 기관지는 "북한 요원들은 탈북자를 살해해도 좋다는 지령을 평양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근래 귀순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물론 그 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재외 탈북자의 신변보호문제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땅히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

1996. 8~9. 통권 3호 주장 / 부이사장 윤우

탈북자문제 세계가 나서고 있는데...

언젠가 국내언론이 시베리아의 북한 별목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일이 있다. 그곳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이 함부로 짓밟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후로 이 문제가 별로 거론되는 일이 없더니 1995년 봄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북-러 입업협정이 새로 체결됐는데, 그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보도였다. 8시간 노동임수·파업권 인정·여권(旅券)의 각자 소지 등이 노동자의 권리로 열거돼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소간 안심했다. 그리고 북한 별목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마음을 써주는 러시아 당국이 은근히 고마웠다.

1996년 9월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채러 북한난민 보고서'가 간행됐다. 별목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옛 협정의 몇몇 조항이 새 협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동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런 조항으로 별목노동자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전허가 없이 제한지역을 떠난 북한노동자를 추적·체포하는 권한이 북한안전원에게도 있다고 하는 조항이 지적됐다. 그러니까 북한안전원이 러시아 전국을 누비며 탈출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읽고 나서 우리는 뒷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1996년 7월 본회 대표단이 주한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사관측은 북한노동자강제송환을 놓고 이렇게 설명했다. "북-러 사이에는 사범공조협정이 체결돼 있다. 우리는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법률을 어긴 북한인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라고 말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범법자란 절도·사기·살인 등을 저지른 사람이려니 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사전 허가 없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난 탈출자도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탈출자를 추적·체포함에 있어서 북-러가 공조하도록 돼 있는 사실이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별목장 이탈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국제난민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북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 땅에서 떠돌아 다니는 별목장 탈출자는 잠재적 한국국민인 셈이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호소로 온 세계가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아직까지도 아무말이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것인가.

1996. 10. 통권 4호 주장 / 이사장 윤현

탈북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자

1990년대 중반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94년에는 51명이, 95년에는 38명이, 96년 5월말 현재로 19명이 각각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부분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지를 전전하다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난민으로 판정받고 들어온 벌목노동자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상한 논평이 나돌기 시작했다. 탈북자 중에 범법자가 섞여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밀도 끝도 없이 나돌기 시작한 그런 소문은 꽤나 널리 퍼지고 있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학자들조차 학술회의에서 “탈북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로서는 아연 실색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그분들은 그런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서 94년에 들어와서 그처

럼 많은 탈북자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시베리아 벌목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구(舊) 소련과 북한 사이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협정은 93년 12월말로 실효됐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 협정이 체결된 것은 95년 2월의 일이다. 벌목노동자의 처우수준을 러시아 수준만큼 높여야 한다는 러시아측 제안을 북한측이 좀처럼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이처럼 오래 끈 것이다.

새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벌목노동이 재개될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은 자구책으로 외화벌이에 나서게 됐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이때 벌목사업장 간부들이 외화벌이에 나설 것을 다그쳤다고 한다.

외화벌이가 어디 쉬운 일인가. 몇몇 노동자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는데, 냉대와 구박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었고, 개중에는 처벌당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돈을 벌지 못한 노동자들은 아예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위 고려인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다. 그러자 탈출노동자를 추적하고 다니는 북한안전원들은 이들 탈출노동자들이 절도·상해·살인 등 큰 죄를 지어서 도망친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고려인들이 탈출자를 더 이상 숨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퍼진 소문을 우리나라에서 거르지도 않고 입에서 입으로 옮기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뭘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1996. 12. 통권 6호 주장

감옥으로 몸을 피하는 사람들

오 헨리의 단편소설 중에 '순경과 찬송가'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 고교 영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그 줄거리를 알고 있다. 부랑자 소피는 교도소에서 겨울을 날 썸으로 백화점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고급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도 하고, 남의 우산을 훔쳐 보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실의 속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찬송가에 귀를 기울인다.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일이 생각나 갱생을 다짐하는데, 바로 그 순간 순경이 그의 팔을 잡는다는 그런 줄거리이다.

새삼스레 다 아는 얘기를 왜 꺼내느냐고 하면 러시아에서 떠돌아다니는 탈북자 중에 부랑자 소피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5년 전인 1992년, 모스크바시의회 기관지는 “시베리아 북한벌목장 안이 얼마나 살벌하기에 그곳을 탈출한 북한인들이 러시아 교도소로 피신해오느냐”고 보도했다. 그들이 일부러 죄를 짓고 러시아 교도소로 들어오고 있다

는 것이다. 동 기관지는 더욱 가공할 소식을 전했다. 탈북자를 추적하는 북한 보안요원들은 “연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체포 즉시 살해하라”는 지시를 평양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다. 탈출을 민족반역죄로 규정해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으로 처하도록 돼 있는 북한형법에 비추어볼 때 평양 당국이 그런 지령을 내렸음직한 일이다.

1998년 9월에 발표된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의 ‘재러시아 북한난민 보고서’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북한난민들은 북한 보안요원의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러시아 연방의 교도소라고 생각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은 형기가 끝날 무렵 언제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형기만료와 함께 러시아 당국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중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다. 꼭 그런 식으로 피신해야만 하는가. 더구나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다니...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한가닥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다급했기에,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기에 자신의 인생을 것처럼 내던졌을까 하고 말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범법자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옳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딱한 사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상참작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1997. 1~2. 통권 7호 주창

대문 앞의 빵과 물

솔제니친의 대작 <수용소군도>에 보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수인들의 얘기가 나온다. 거의 대부분은 추격대에 잡히거나 주민의 신고로 잡힌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사막에서 길을 잃고 지쳐서 죽는 경우도 많다. 궁핍하게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은 도망자를 정부기관에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식량·부식물로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수라장 속에서 용하게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도주로 연변의 집 앞에 놓인 빵과 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소련 공산당이 통치하던 시대다. 당국은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인민의 적’·‘제국주의의 앞잡이’·‘인간쓰레기’로 호칭하면서 “도망자를 도와주는 자는 그들과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랬지만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밤에 대문을 닫으면서 빵과 물병을 그 앞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1997년 3월 월례회 때 우리는 러시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Y목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 당국을 상대로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알려주자 그는 “러시아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한국 국민이 문제입니다.”라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원·상사원·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데 일개 시민단체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러시아 당국이 호락호락 들어주겠느냐는 것이다.

국제여론의 힘을 대단찮게 보는 그분의 사고에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아닌게 아니라 동족인 한국인들조차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국인(異國人)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는가.

러시아의 탈북자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 탈북자를 도와주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중국 공안당국의 서슬에 놀려서 조선족 동포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탈북자들이 곳곳에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순한 솔한 귀순자 본인들이 그곳 한국공관과 한국인들의 무관심·박대에 대해 섭섭해 하고 있다. 작년 8월의 월례회 때 이순옥 씨는 “한국 사람들의 냉대에 절망해 아들과 함께 독약을 먹고 죽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한국인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상실해버린 것일까.

1997. 4. 통권 9호 주장

사선(死線)을 넘는 사람들

사선을 넘는다는 말이 있다. 죽을 고비를 넘는다는 말이다. 외침을 당하거나 내전을 치루는 나라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몇 번씩 사선을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모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하는 북한동포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은 그들을 향해 인정사정없이 발포한다고 하므로 그야말로 사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발언한 한 미국인 법학자 바이스브로트 미네소타대 법대교수도 이를 확인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으로 강냉이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두만강변에서 사살당한 북한동포의 시체 여러 구를 비디오테이프에 담고 돌아왔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불법월경이 사형에 처해져야 할 만큼 중한 죄는 아니다. 더구나

박해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에게는 체류국에서 난민으로 대접받을 권리마저 인정되고 있다. 그런 범상식이 두만강·압록강변에서는 난폭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한 것은 범상식을 지키라는 말이다. 주민이 원하면 절차를 밟아 출국시키고 또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발포하지 말라는 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대북(對北)압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 기회에 탈북동포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탈북동포를 받아들이는 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강냉이보내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 의하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은신중인 탈북자 5가족 12명은 주중한 국대사관에 보호를 신청했지만 곤란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어째서 문전박대하는 것일까.

만약 우리 정부가 끝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공안원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당하거나 굶어 죽을 게 아닌가. 그들의 정체가 미심쩍다고 하면 국내에 들어오게 한 다음 시일을 두고 조사하면 될 것이고, 정착·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평화의 댐' 건설 잉여금 2백여억원을 전용하면 되지 않는가. 도대체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국민성금이 아닌가. 어째서 그런 돈을 묵혀두고 있는가. 사선을 넘어오는 북한동포를 위해 쓰겠다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사람의 생명 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위정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7. 9. 통권 13호 주장

거덜나는 재중 동포 가정

언젠가 한 재중 동포(조선족)가 쓴 '두 번 울린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일이 있다. 한 번은 못된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1만여의 조선족 세대가 결판나는 것을 보고 울었고, 또 한 번은 조선족돕기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울었다는 내용이었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우는 것이 우리네다... 조선족 동포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한국동포들의 눈물, 그 동포애의 눈물 앞에서 핏줄의 인연을 재확인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눈물이 하나로 합쳐서 오래도록 잊혀졌던 민족애를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 드넓은 만주까지 흐르게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나고 있었다. 필자는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최근 재중 동포 사회에 결판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탈북자를 숨겨주거나 한국으로 탈출케 했다는 죄목으로 처벌당하는 재중 동포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흑룡강성에 사는 Y 씨 가정도 그중 하나다. 3년전인 1994년 Y씨는 탈북자 오 씨 일가 5명을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숨겨주고, 베트남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케 했다. 후일 그 일이 발각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당했는데, 친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자그마치 4만원(元)이나 돼 살림이 거덜나고 말았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4백만원이지만 중국에서는 거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간수입이 1만원(元)이면 만원호(萬元戶)라고 해서 갑부소리를 들었을 정도다. Y 씨의 집은 2만원(元)으로 평가돼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언제 거리로 쫓겨날지 알 수 없다.

1997년 3월 14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는 형법을 개정,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했는데,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밀·출입국을 조직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이, 조직의 주모자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밀출입국자 운송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그리고 회수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 법개정으로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해 숨는 일, 한국으로 찾아오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 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Y 씨처럼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게 돼 살림이 거덜나는 가정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탈북자돕기와 함께 조선족돕기운동이 또 한번 일어나야 할 것 같다. 먼저 번의 조선족돕기운동이 사과의 뜻이 담겼다면 이번 조선족돕기운동은 격려의 뜻이 담겼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뒷배를 보아준다는 것을 알면 그들도 마음 놓고 탈북자를 보살피줄 게 아닌가.

1997. 11. 통권 15호 주장

동포의 정(情)

법정(法頂) 스님의 저서 가운데 〈인도기행〉이라는 게 있다. 스님이 손수 찍은 컬러사진은 가히 프로급이라 할 만하고, 글 또한 뜻이 깊어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이 글에서 보면 스님은 바이살리라는 곳에서 사흘 간이나 크게 앓았다고 한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누구나 객지에서 앓으면 집이 그리워지는 법이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다가 오늘이 절후로 소설(小雪)임을 알게 되자 문득 두고 온 산하에 대한 그리움이 솟았다.”라고 스님은 기술하고 있다.

스님의 향수는 아쇼카 필라(돌기둥) 아래 피어 있는 봉선화를 발견했을 때 절정에 달한다. “낮선 이역땅에 와서 눈에 익은 꽃을 보면 같은 동포라도 만난 듯이 아주 반갑다. 파리하게 피어 있는 그 봉선화를 보면서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고 오랜만에 나직하게 노래를 부르니, 마음 속에 까닭 없는 슬픔이 고이려고 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도 이처럼 고국과 동포가 그렇다면 아무런 기약이 없는 유민(流民)의 심사야 오죽하겠는가. 여러 해 전 사할린의 어느 시장에 김치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난 한 신문기자의 체험이 문득 생각난다. 헤어질 때 그 할머니는 꼬깃꼬깃 접은 50루블짜리 지폐를 기자 손에 쥐어주면서 “친정 식구에게 주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1998년 3월 필자는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났다. 그동안 열 명이 넘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있다가 차례로 한국으로 들여보낸 분이다. 그 분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목 마르게 찾고 있는 것은 동포의 정이라고 한다. 러시아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한국인과 부딪치게 된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한다. 돈벌이에 급급한 그들에게는 동포의 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도 탈북자들에게 동포의 정을 베푸는 것은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라고 한다. 하룻밤이라도 재워주고 한 끼라도 먹여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다. 이들 선교사야말로 한국인에게 아직도 동포의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근래 재러 한국선교사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달러환율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선교비가 절반으로 줄어 더 이상 탈북자에게 동포의 정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들이 또 다시 거리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판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재외탈북자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이다.

1998. 4. 통권 19호 주장

北의 옥문을 부순 사람들

러시아 원동지방 아무르주(州)에는 북한 벌목장뿐만 아니라 북한 농장이 있어서 수많은 북한 농업노동자가 콩이나 야채를 재배하고 있다.

농장 하나의 경지면적은 1만 정보에 달하고, 트랙터 등 기계류의 총수는 1백 50대나 된다. 한 해에 2천 톤 이상의 콩을 북한으로 보낸다. 수확이 끝나고 결산분배를 하게 되면 노동자 1명당 5백달러(약 80만원) 정도가 배당된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보아서는 높은 편이어서 뇌물을 바치고 청탁을 넣어야 이곳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장 안에는 창문에 쇠창살이 박힌 유치장이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감옥’이라고 부른다. 작업규율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잠시 가두어 두기 위한 곳이라는 게 농장관리소측의 해명이다. 90년초 러시아에서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폐쇄된 듯하더니 어느덧 원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7년 8월 11일 밤 ‘감옥’ 문이 부서지고 안에 갇혀 있던 노동자 18명이 일제히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현지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내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필자 역시 최근 일시귀국한 한국선교사를 통해 탈출자 18명 중 2명이 연서해서 보낸 호소문을 받고서야 사건 개요를 알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쩌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어쩌서 옥문을 부수고 뛰쳐 나왔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들에 따르면 농장에서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나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비서·지배인·부기장 등 간부들이 짜고서 요리조리 빼먹는 바람에 적자가 나서 결산분배 때 노동자에게 돌아갈 게 없었다는 것이다.

“빈손으로는 집에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이들은 농장을 뛰쳐 나와 개인청부업에 나서게 됐는데, 그러다가 북한 안전원(국가안전보위부원)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온 것이다. 18명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서 한밤중에 ‘감옥’ 문을 부수고 도망치게 됐는데, 이들이 북한 안전원들의 최우선적 추적대상이 됐다고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들이 첫째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난민수용소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각국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억울한 사정을 폭로한 다음 깨끗이 자결해버리겠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이 피맺힌 절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1998. 5. 통권 20호 주장

탈북수기의 또 하나의 효용

탈북수기 〈남녘으로 가는 길〉을 간행할 때의 생각은 탈북자를 경제난민으로만 보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많이 팔려서 이익이 남으면 그 돈을 재외탈북자생활보호기금에 보태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이 책이 생각지도 않던 효용을 지니고 있다는 게 판명됐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민족화해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1998년 9월 19일 필자는 팩스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한글로 또박또박 쓴 편지였는데 발신지는 러시아 연해주의 모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조선 독재자의 잔인한 통치하에서 벗어나 차디찬 이국 땅의 한구석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저주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김○○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탈북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자기소개여서 신기하거나 별난 데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전혀 뜻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저는 우연히 탈북자 김호 씨가 쓴 수기 〈남녘으로 가는 길〉을 읽게 되었으며 책머리와 책끝에 써여져 있는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한동안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1개월 사이에 어떻게 그 책이 러시아 연해주의 탈북자 손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것 간첩의 농간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펄쩍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다음을 읽어 보았다. “그 글은 10년 동안 이국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국사람들로부터 사기와 멸시를 당하고 헐박까지 받은 적이 있어 남조선사람이라면 북에서 살 때보다 더 증오하였던 저에게 남조선사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해주었고, 또 우리 탈북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해주고 우리들의 생활과 안전을 넘려하여 돕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과 민족애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 씨는 신변의 안전과 먹고 사는 일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동포라고 하는 한국인이 자기들을 간첩·배반자·거지·정신병자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저 같은 인간도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하여주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말로 그의 글을 끝맺고 있었다.

그동안 생각이 모자란 ‘추악한 한국인’으로 인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 앞으로는 생활보조금과 함께 동포의 정을 전하는 글도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8. 10. 통권 24호 주장

재중 북한 고아들

흔히 사람들은 생활수준을 가지고 선진국이나 아니냐를 판별하려고 한다. 문명의 이기를 많이 이용하고 살림이 풍족해 보이면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IMF 한파가 불어닥치기 직전에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온 나라가 들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일인당 GNP 1만달러 돌파가 그 근거였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아니냐를 판별하는 또 다른 척도가 있는 것 같다.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를 놓고 선진·후진을 가리는 것이다. 오늘날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능욕하는 르완다·세르비아 같은 나라를 아무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다.

고아 입양도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입양한 한국 고아 4명을 데리고 입국한 미국인부부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다. 4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을 보았을 때 이 부부가 몹시 존경스러웠다. '제가 낳은 자식인데도 신

체가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길에 내다 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 11월, 필자는 한 일본 청년에게서 책 몇 권과 팩스 한 통을 받았다. 책 가운데 RENK라는 일본 NGO의 기관지 4권이 섞여 있었다. RENK란 재일 한인 김영달 씨와 이영화 씨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일본의 북한민주화 단체다. 기관지를 펼쳐보았더니 재중 북한 고아를 수양 아들·딸로 삼자는 캠페인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고아 1인당 월 5천엔(한화 5만원 정도)을 보내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시키려면 학비를 따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본 청년이 보낸 팩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동안 RENK는 4명의 북한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최근 그중 2명이 중국 공안원에게 체포 당해 국외추방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인에게서 받아 모아두었던 외화는 벌금으로 압수 당했다고 한다.

부모 없는 북한 어린이에 관한 얘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종종 거론돼왔다. 그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구걸하고 다닌다든지 하는 흥미위주의 보도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 과연 우리는 제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민족인가. 북한 고아들이 중국 땅에서 떠돌고 있는 한 우리는 선진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98. 12. 통권 26호 주장

재중북한고아를 돕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연길에 가면 북한에서 온 고아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동족인 탓으로 조선족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조선족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낮 시간에 시장 바닥을 배회하거나 식당 앞에서 서성대고 있어서 북한 고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붙잡고 물어보면 “북조선에서 왔시오.” 하고 선선히 대답한다.

현지 사람들에 따르면 1998년 봄부터 북한 고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낮에는 구걸을 하고 밤에는 창고·빈집 등에서 노숙한다. 개 중에는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중국 공안당국의 새로운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고아들은 붙잡히는 날에는 어른들과 똑같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 당한다. 강제송환 당하면 한동안 9·27 수용시설에 수용 당하고 있다 가 풀려나거나 탈출한다. 대개의 경우 그 길로 또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몰

래 들어간다.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중국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면 애잔한 사연도 많다. 청진에서 왔다고 하는 열 다섯 살 난 한 사내아이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먹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떠돌이 생활도 여의치 않아 아들이 먼저 헤어질 것을 제의했다. “아버지, 이러다가 둘 다 죽겠어요. 각자 빌어먹다가 살아 남으면 다시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쪽으로, 그리고 아이는 북쪽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진 그 아이는 연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불쌍한 아이의 얘기를 듣고 가슴만 아파하고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인가. 통일 후 우리의 뒤를 이어 이 강토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아닌가.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재중북한고아보호사업에 나서야 한다.

먼저 정부는 이들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제기해야 한다. 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고 있는 중국당국의 처사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재중북한고아돕기사업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뜻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나서고 있는데 동족인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서야 말이 되는가.

1999. 7~8. 통권 32호 주장

‘왕의 법’과 ‘하늘의 법’

20여년 전 1979년, 연극 ‘아일랜드(섬)’가 서울 장안의 화제가 된 일이 있다. 흑인 무기수로 분장한 배우 두 사람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얘기를 풀어 나가는데 두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1백 석 남짓한 좌석은 언제나 만원이었다.

이 연극의 배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고, 흑인 무기수들은 백인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투옥 당한 사람들이었다.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극중극이었다. 두 무기수는 형무소 오락시간에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고 희랍비극 ‘안티고네’를 각색·연습한다. 반역죄로 처형 당한 남동생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죄목으로 왕 앞에 끌려 나온 안티고네는 “왕의 법 위에 하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고 절규한다. 비록 왕의 법이라고 해도 천륜(天倫)을 어찌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기수들은 이 극중극을 통해 백인정권의 흑백분리(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반윤리성을 고발하려 했던 것 같다.

연극 ‘아일랜드’를 새삼스레 소개하는 것은 최근 재중 탈북자를 돕다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재중동포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중국 각지에는 숱한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다. 몽골 또는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는 탈북자들이 적지 않다는 설(說)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동북지방에만 은신하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다.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일가친척 집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일가친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쫓기던 새가 품 안에 날아들면 사냥꾼도 그 새를 죽이지 못하는 법이 아닌가. 하물며 사람이 살길을 찾아 몸을 의탁하려 하는데 어떻게 박정하게 내쫓는단 말인가.

1999년 8월 재중 북한난민 실태조사에 다녀온 자원봉사자들이 우연히 탈북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젊은 남자를 모처에서 만나게 됐다. 불안에 몸을 떨면서 어둡한 곳으로만 몸을 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대학생들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들짐승을 연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을 이런 지경으로 내몬 북한 권력집단의 폭정과 그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중국 공안당국의 비정함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지금은 분노에 몸을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안티고네의 절규처럼 분명히 하늘의 법은 왕의 법 위에 있다. 천륜에 따라 궁지에 몰린 일가친척을 돕다가 벌금을 물게 된 재중동포를 보조하는 기금을 우선 우리 한국인이 마련하자.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나서자.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세계가 기꺼이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1999. 9. 통권 33호 주장

탈북자 7인사건의 파문

1999년 11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잡힌 탈북자 7인은 끝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고 말았다. 이 일을 놓고 국내에서 “외교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데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목숨이 보전되고 또 석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이다.

비록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외국인사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한다.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때 7인의 얼굴과 육성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했을 뿐 아니라, 그 테이프를 외국인 참석자에게 배부한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이들 외국인 참석자들은 현재 국제여론의 환기를 위해 매우 정력적으

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의 앵쉬테인 변호사는 각국 외무부 장관과 접촉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는 “EU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회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그는 미국의 솔트 방위포럼재단 회장과 함께 북한인권문제 의회청문회 개최를 추진중인데 그때 7인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랜들러 오토라재단 사무총장과 거쉬먼 NED 회장의 활동도 눈부시다. 랜들러 씨는 국무성 인권차관보 및 남북한팀과 만나 모든 북미접촉 때 7인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청했고, 또 거쉬먼 씨는 언론 캠페인을 벌이면서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언론인 마우리조 줄리아노 씨는 야당의원으로 하여금 7인사건의 경위를 외무부 장관에게 질문케 하는가 하면, 이탈리아의 북한문제 전문가에게 7인사건 관계자료를 넘겨주고 글을 쓰도록 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한 직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글을 받았다. 그는 이 글 가운데서 “귀회의 활동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7인의 북한난민에게 가해진 중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BBC, CNN과 같은 대(大)방송사와 접촉할 것”을 본회에 종용했다. 그리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러시아방문 때 7인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엔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2000. 2. 통권 37호 주장

탈북자 7인사건의 파문(속)

1999년 11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잡힌 탈북자 7인이 중국을 거쳐 2000년 1월 12일 북한으로 강제송환당한 사건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그중 1명이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했으나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근래 북한난민문제가 외국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탈북자 7인사건은 그런 기사에서 반드시 지적된다. 2월 1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紙)의 존 폼프렛 베이징특파원은 장문의 기사 가운데서 이 사건에 언급하면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러시아와 중국의 처사를 놓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폼프렛 특파원은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침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3월 2일 프랑스의 영자신문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지(紙)의 돈 커크 서울특파원은 “봄이 오면 탈북자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1월의 강제송환사건은 수백 건의 유사한 사건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외국 언론 이외에도 유럽연합(EU) 가맹국 정부들도 탈북자 7인사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캐나다의 앵쉬 테인 변호사가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EU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2월 16일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정부도 똑같은 내용의 통고를 보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통고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 서신에 보면 “오늘날 북한난민의 상황은 중국이 북한난민 7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유럽인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를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이어서 동 서신은 국제난민조약(1951년) 가입국인 중국이 UNHCR의 난민판정을 무시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실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서신에 따르면 유엔은 러·중 양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이미 제기했고 또 난민판정문제와 난민보호문제를 협의중이라고 한다. 또 EU 가맹국들은 중국 및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중임이 지적되고 있다. EU 가맹국들은 이 문제가 마땅히 제기되고 또 다루어져야 할 심각하고도 까다로운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이 서신은 전하고 있다. 끝으로 동 서신은 이 사건을 면밀히 추적할 것과 북한난민의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다짐하고 있다.

온 세계가 이처럼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이 북한난민사건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00. 3. 통권 38호 주장

우리는 왜 북한 난민을 돕고 있는가

2000년 3월 본회 주최 학술토론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논문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차례가 되자 한 분이 “우리는 북한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타국인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고 물었다. 아마도 이 분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인데 한국 정부가 왜 북한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것처럼 소홀할 수 있느냐 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탈북자 7인사건의 처리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정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명백하다. 홍콩 언론인 프랭크 칭 씨도 ‘과 이스턴 이커노믹 리뷰’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자세를 놓고 “때늦게 허둥댔다”고 비판 바 있다. 그러니 그 분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질문에 대해 사회자는 북한 주민의 국내법상 지위와 국제법상 지위

가 다른 점을 지적한 다음, 북한과도 국교를 맺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난민에게 외교적 비호권을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자 중 한 분이 우리가 북한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국 국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도 인간인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또 한 분의 학자도 이 주장에 동조했다. 진보지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이 탈북자 7인사건을 그 초기부터 추적·보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난민문제는 정치이념을 떠나 모든 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 두 학자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난민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핏줄이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인권운동에서도 연고주의(네포티즘)의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된다.

선진국 지식인들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비판하면서 반드시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연고주의다. 학연·지연·혈연 등이 선거 때만 판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사회이다. 연고를 근거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고 도도히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서 크게 뒤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2000. 4. 통권 39호 주장

투먼구치소 폭동사건

2000년 4월 21일 국내언론은 “중국 지린성 투먼 소재 구치소에 갇혀 있던 북한난민들이 18일 강제송환을 거부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보도의 소스는 일본에서 북한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구출하자 북한민중을!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 AP 등 세계적인 통신사도 도쿄발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했다.

25일 美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규범’ 제하 논설에서 “중국 당국은 탈북자 7인사건 때도 그랬듯이 그들이 송환 당하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난민 100명을 북한으로 송환해버렸다”고 중국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후로 동 사건에 관한 소식이 현지로부터 본회에 속속 들어왔다. 한 소식통은 “투먼구치소에는 북한난민 80명이 갇혀 있었는데 그중 60명은 임신녀를 포함한 여성이었으며, 군인출신 2명의 강제송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

면서 ‘통일의 노래’를 목청이 터져라고 불러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소식통은 “북한난민 중에는 두 명의 북한현역군인이 있었는데 강제송환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중국경비대원 한 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던 중 4월 29일 美 워싱턴 포스트지가 북경발로 동 사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존 폼프렛 기자가 취재한 것이다. 폼프렛 기자에 따르면 폭동은 4월 16일 일어나 3일간 계속됐고, 열악한 처우가 폭동 원인이었으며, 중국국경경비대의 총격으로 여러 명이 부상 당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한다.

5월 2일 한국 연합통신은 제네바발로 ‘UNHCR,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조사착수’ 제하의 기사로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연합통신은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UNHCR 베이징주재 사무소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연합통신은 “폭동은 4월 18일에 발생했으며, 강제송환은 다음날인 19일에 이루어졌는데 송환 당한 탈북자의 수는 50명이며, 그중에 폭동가담자가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UNHCR 관계자는 “강제송환 당한 탈북자 가운데 난민 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UNHCR의 이와 같은 노력을 힘껏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0. 5. 통권 40호 주장

‘우리아이들’ 이야기 ①

“우리 아이들이 중국 공안원에게 잡혀갔습니다.” 하고 김 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은 2000년 9월 16일의 일이다. 김 사장이란 중국에서 탈북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협력자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분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도와왔고, 또 현지 소식에 접해 왔다. 2000년 8월말 우리 모임의 자원봉사자 임지영 양(경상대생)과 진익한 군(경상대생)이 중국에서 탈북청소년들과 4박 5일간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김 사장의 주선 때문이었다.

은신처 두 곳 중 한 곳이 중국공안의 급습을 받아 숨어 있던 아이들 4명이 어른 2명과 함께 잡혀갔다는 것이다. “이들을 풀려나게 하려면 돈이 좀 들 것 같습니다.” 하고 김 사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곧 서울과 진주에서 모금이 시작됐다. 진주에서 모금이 시작된 것은 임 양과 진 군이 적을 두고 있는 국립경상대학교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심야에 김 사장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남자아이 2명은 홍콩을 타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여자아이 2명은 협상결과로 풀려났지만, 어른 2명은 북한으로 끌려간 것 같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이들만이 라도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중국을 다녀온 다음 임지영 양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소감을 기고했다. 거기에 보면 원이, 신혁, 정섭, 은철, 국화라는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온다. 무뚝뚝하게 굴던 원이가 나흘째 되던 날에는 “누나 인제 가면 보고싶어서 어떡해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원이와 신혁이 임 양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하라고 걱정해주기도 했다.

임 양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아프게 한 것은 아이들이 숨어 있는 집 대문을 누가 와서 두드릴 때였다고 한다. “정해진 신호가 아니어서 모두 순식간에 긴장했다. 발소리를 내지 않고 침대 밑으로 숨으라는 등 난리였다. …… 나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두려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오히려 나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금망은 부산, 대구로 확산됐다. 2000년 10월 6일에는 국화, 신혁, 정섭이 1차로 입국했고, 2001년 3월 2일에는 원이, 은철이 2차로 입국했다.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다.

2001. 4. 통권 49호 권두언

‘우리아이들’ 이야기 ②

2000년 가을에서 금년 봄에 걸쳐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던 재중탈북청소년(우리 아이들) 5명이 입국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볼 것 못볼 것을 보면서 살아왔겠지만, 그중에서도 원이의 사연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는 중국에서 아홉 번이나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 당했지만, 그때마다 말을 잘해서 풀려나거나 탈출했다고 한다. “첫 번째 송환 당했을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곧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는 좀 맞았고, 세 번째부터는 심하게 맞았습니다.”

원이는 꽃제비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어른들과 함께 집결소에 갇히기도 했다. 꽃제비 수용소는 대체로 3, 4층 건물이어서 아이들은 곧잘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한다. 네 아이가 담요 네 귀를 잡고 3층이나 4층에서 뛰어 내리는데 잘못하면 담요가 뒤집혀서 그대로 추락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건너간 우리 모임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서 원이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지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말하는 바람에 자원봉사자들은 어안이 병병했다고 한다

집결소에서는 죽음은 더욱 흔한 일이라는 게 원이의 말이다. “농포 집결소에서 2개월 가량 갇혀 있었는데 죽어 나가는 것을 10회 가량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또 누가 죽었나보다’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원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 당한 임신한 여자들은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더 가혹하게 다루어진다고 한다.

2000년 8월 원이를 만나고 귀국한 경상대생 2명(임지영·진익한)이 교내에서 모금활동을 벌인 일이 있는데, 원이에게서 여동생 순이(16세)를 찾는 비용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순이는 중국에서 함께 유랑하던 중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갔다고 한다. 함께 보호받고 있던 국화·신혁·정섭이 2000년 9월 한국을 향해 길을 떠났을 때 원이가 뒤쳐진 것은 그 때까지도 순이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다

2001년 초 순이가 북한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원이에게 전해졌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해 원이는 또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고향집으로 향했다. 과연 순이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제서야 원이는 마음 놓고 한국으로 가는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필자는 서울 모처에서 원이와 은철을 대면했다. 둘 다 18세라고 하는데 몸집이 작아서 한국의 15, 6세 소년과 같았다. 이들이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

2001. 5. 통권 50호 권두언

재중 탈북청소년과의 대화

2002년 3월 중순 본회 조사연구팀이 중국 동북지방을 다녀왔다. 탈북자 25명사건 이후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조사연구팀의 눈에 비친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삼엄했다. 두만강변 곳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음성감지기인 듯한 기계장치도 눈에 띄었다고 한다. 검문·검색의 강도 역시 훨씬 높아져서,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사전 예고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검문하는 바람에 기겁을 했다고 한다. 한 현지 활동가는 “요즘은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하니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조사연구팀은 숨어 지내는 탈북자 몇 명을 만나 사는 형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종일 집안에만 갇혀 있고 밤에는 전등을 끄고 지낸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았다.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에는 굶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잘 먹고 또 바깥에서 뛰어 놀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조차 이런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으니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사연구팀이 두 자매(14세, 19세)와 나눈 대화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 언제 북한에서 나왔지?

“10여일밖에 안 됐습니다.”

- 어디서 살았지?

“청진입니다.”

-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니? 학교에 다녔니?

“식량배급이 끊어진지 오래입니다. 쌀감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학교엔 못 갔습니다.”

- 북한에서는 무료교육이라고 하던데…….

“수업료는 내지 않지만…… 하지만 학교에서 거의 날마다 철도공사에 쓴다 금강산 개발에 쓴다 하면서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5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어니?

“공부가 제일 하고 싶습니다.”

-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3년 전(1999년) 영국의 비디오 제작팀이 만든 <비밀왕국의 아이들>을 보

면 평양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해보였지만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비참했다.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일까 하고 고개를 가우뚱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이었던 것이다. 이 민족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2002. 4. 통권 59호 권두언

인권위치의 재중 북한난민 보고서

2002년 11월 19일 뉴욕 소재 인권위치(HRW)는 재중 북한난민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눈에 띄지 않는 대탈출 : 재중 북한 주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년에 걸친 은신생활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 대해 체포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과 지원 활동가 괴롭힘을 그만둘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치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본회를 포함한 탈북자 지원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 관계자·연구자들과 면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탈북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신매매, 강제 송환 당한 탈북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박해 등이 낱알이 기록되고 있는데, 박해 중에는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강제노동·강제적 임신중절 등이 있다.

이 보고서를 간행하면서 인권위치 워싱턴사무소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마이크 엔드레체치크 씨는 “난민들은 굶주림과 인권침해를 피할 목적으로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난처를 찾아 입국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치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에게 인권을 지키도록 압박을 가할 것과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게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HCR)관계자가 한중 국경에서 탈북자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건 이후로 공관 주변의 경계가 한층 강화됐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이 공관 진입자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과 한중 국경지대의 경계가 더욱 강화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제 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이 부정적임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세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권위치는 유럽연합(EU)·일본·미국·캐나다 등 중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각국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제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중국이 UNHCR과 고위급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중간 조치로 중국이 탈북자에게 ‘무기한 인도적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메이저 인권 NGO의 하나인 인권위치가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재중탈북자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 12. 통권 66호 권두언

세 탈북소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자

요즘(2004년) 우리는 중국 모처에서 보호받고 있는 세 탈북소녀를 위해 모금하고 있다. 중국 공안의 색출활동이 부쩍 강화돼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1,200만원이나 든다.

두 명은 17세이고 한 명은 15세인데,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이다. 2002년, 식량난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한다. 다행히 마음씨 고운 조선족을 만나 그동안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들이 방치된다면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다시 두만강을 넘을 게 뻔하다. 그때 마음씨 고운 조선족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십중팔구는 인신매매단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팔려갈 것이다.

얼마 전에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라는 게 서울에서 열렸는데,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온 리상욱(78)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생활에 대해 증언했다.

“하루는 왜놈들이 오더니 동네 처녀 15명에게 돈 벌 수 있다며 멀리 가자고 그랬시오. 군용차를 타고 가다 네 명씩 내려주더니 마지막엔 탄실이, 금녀, 그리고 저만 남았시오. 그리곤 판잣집에 가둬놓고 머리를 잘랐어요. 이튿날 칼 찬 놈이 들어와 싱글거리더니 내 몸을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한겨레 2004. 5. 22)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또 부끄럽다. 이 땅의 어른들은 얼마나 못났기에 딸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역 땅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했으며 또 지금도 당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제 시대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조선의 딸들이 팔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연간 수백만 명이 해외 관광여행을 떠나고 먹다 남은 음식을 치우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 땅에서 떠도는 탈북소녀 수백·수천 명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교육시킬 힘이 있다.

우선 회령 출신 세 소녀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우리은행 142-097009-01-201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6. 통권 82호 권두언

두 모녀의 목숨을 구한 25만원

2004년 7월 중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올해 서른여섯 살 난 북한여성인데, 중국 공안의 단속도 심하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니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지만 이 여성의 처지는 정말로 딱한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돼 엄청난 고통을 겪은 바 있어서 “이번에 또 잡혀가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곱살 난 딸이 있는데 빛의 불모로 잡혀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우선 현지에 있는 우리의 협력자에게 25만원을 보내면서 그 여성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나흘 후 그 여성에게서 “돈은 잘 받았습니다. 딸도 되찾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전화가 왔다. ‘잘 되었구나’ 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20여일 후 그 여성에게서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딸을 데리고 어렵게 베이징까지 왔는데 앞날이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외국 공관으로 뛰어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다만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어서 영락없이 잡힐 것 같습니다. 돈도 떨어져서 딸아이도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차역에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정말로 우리는 난감했다. 베이징에는 알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정신없이 국내외로 수소문했다. 며칠간만이라도 이 모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아 본 것이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이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몇 시간 후 그 탈북여성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외국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다음 중국어로 위치를 알려주라고 일렀다. 이튿날 아침 “저희는 이제 살았습니다.” 하는 전화가 마침내 걸려왔다. 그때가 2004년 7월 25일 오전 10시였다.

환희와 흥분의 시간이 지나자 별의 별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언제까지나 우리 민족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가? 왜 우리 정부는 관련 국가들을 설득해서 지역적 안정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가? 민족공조를 외치는 사람의 눈에는 이들 모녀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언제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시류에 민감했던가. 우리는 앞으로 도 작은 동포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 8. 통권 84호 권두언

반가운 일, 서운한 일

인간 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2004년 9월에는 반가운 일과 서운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반가운 일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난 2004년 7월 25일 우리의 주선으로 베이징 소재 외국 공관원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여성이 9월 10일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이다. 이 여성이 데리고 있었다는 딸(7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또 하나는 우리의 도움으로 2004년 2월 3일 입국한 전영미 씨의 딸 지향이 입국한 사실이다. 우리가 처음 중국에서 전영미 씨를 만났을 때 큰아들 려명리와 지향이 함께 있었다. (작은아들 광명이는 유랑생활 중 행방불명이 됐다.) 당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머니와 큰아들만 데려올 수밖에 없었고, 딸 문제는 그분들이 해결하기로 했다. 그랬던 게 최근 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해 9월 22일 가족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운한 일은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본인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은 일이다. 5년 전 우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던 김아무개 목사에게서 한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만기로 출소해 중국으로 탈출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정치범수용소 출신자를 만나기 어려웠던 관계로 그 자리에서 생활비 60만원을 건네주면서 그가 정치범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글로 써줄 것을 요청했다. 얼마 후 김목사에게서 그 글을 받아 앞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용소 출신자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거의 틀림없다는 게 한결같은 판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백만 원을 염출, 김목사에게 그의 이주비용으로 건네주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김 목사와 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김 목사 자신이 괴한들에게 납치당하고 말았다. 그 수용소 출신자는 3년 후 갖은 고생 끝에 입국에 성공했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 만났고, 그동안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공개를 유보해온 수기를 우리의 간행물에 게재했다. 그랬는데 그가 우리에게 항의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왜 내 글을 공개했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일지기록과 김 목사가 서명한 영수증을 본 다음에야 그의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04. 10. 통권 86호 권두언

끝나지 않은 한반도 여성의 수난

강대국들에 둘러 쌓인 관계로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번번이 외침을 당했다. 그때마다 국토는 불탔고 사상자가 속출했으며, 침략군이 물러간 다음에도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됐다. 볼모로 잡혀간 가솔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많았다. 인질을 되사는 일을 한자어로 속환(腦還)이라고 한다.

속환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게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1636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침입한 청나라 군대는 삼전도(三田渡)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은 다음 세자·대신·양반·양민 수만 명 (어느 기록에는 50만명)을 볼모로 잡아갔다. 이들은 청나라의 당시 수도인 선양의 저지에서 공공연히 매매됐다. 가솔의 몸값을 치를만한 재력이 없는 서민들은 영영 생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그로부터 3백 6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선양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탈

북 여성들이 팔려 다닌다. 병자호란 때와 다른 점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질범 중에 북한인과 조선족이 적지 않은 사실이다. 동족이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팔려간 여성들은 한족이나 조선족과 가정을 꾸미거나 유흥업소에서 성 산업에 종사한다. 마음 착한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개는 성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때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 번 전매당하기도 한다.

3년 전부터 우리는 줄이 닿는 대로 주로 나이 어린 여성의 몸값을 지불한 다음 본인이 원하면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다. 비용 전액은 우리의 구호금에서 지출된다. 2001년 가을 원이의 여동생 순이를 데려온 게 첫 케이스인데, 그 후로도 여러 명을 입국시킨 바 있다. 이 여성들은 대체로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많은 한국의 뜻 있는 분들이 이 현대판 속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국경없는의사회(MSF), 미국의 방위포럼재단(DFP),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등 외국 NGO도 참여하고 있다.

2004년 탈북여성 2명(19세, 21세)의 몸값을 지불하고 넘겨받은 다음 중국 모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 입국시킬 예정이다. 이번 일은 노르웨이 라프트재단과 함께 진행시키고 있다.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

2004. 12. 통권 88호 권두언

진상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1999년 11월 11일, 러시아 연해주 국영방송(OPT)은 여성, 소년을 포함한 탈북자 일곱 명이 밀입국 혐의로 체포당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했다.

탈북 동기와 목적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탈북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러시아에서 살 마음은 없고, 동족이 사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북한으로 송환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라며 잘라 말했다.

이 보도가 나간 지 얼마 후(12월 상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모스크바 사무소 대표는 현지에 가서 이들을 면접한 다음 난민으로 판정하고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제적십자사 발행 여행증과 러시아 정부 발행 출국비자(10일간)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한국 행은 낙관시됐다.

그러나 12월 중순이 되자 상황이 급변해 12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이듬해(2000년) 1월 12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을 북한 정부로 넘겨주고 맡았다.

2001년 4월, 북한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앞으로 보낸 공식문서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실제로도나 개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일곱 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여섯 명이고, 그중 밀수사건에 연루된 허영일과 그의 아내 방영실은 5년 이상의 교화노동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네 명은 본래의 직장이거나 학교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결코 믿지 않았고, 해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당한 1월 12일이 되면 이들의 생사 여부와 소재 확인을 위한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2002년 1월 우리는 이들 일곱 명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를 잡았다. 일곱 명 중 한 명의 친척이고 북한에서 함께 잡혀서 옥고를 치른 탈북자를 한국에서 만난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곱 명 중 한 명인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덕관리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어서 두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2000년 초부터 3년간 요덕관리소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한 사람을 또 한국에서 만난 것이다. 여성과 소년은 입소 전후에 병사했다고 그는 전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세 번째 실마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진상이 좀 더 밝혀질 것이다.

2005. 11. 통권 97호 권두언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보고나서

2006년 3월 31일 정기총회가 끝난 다음 참석자 일동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관람했다. (필자로서는 세 번째 관람이었다.) 지난 10년간 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를 제기해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수인들의 고통과 절망이 가슴에 와 닿았다.

‘거기 누가 있다면/ 이 비명 소리 듣고 있는지/ 거기 누가 있다면/ 제발 우릴 구해주세요...’ ‘아버지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공화국 요덕에도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필자에게는 방영실이라는 한 젊은 여성의 부르짖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방영실이 누구냐고 하면 1999년 11월 10일 남편을 포함한 탈북자 6명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에서 러시아 국경경비대원에게 잡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 26세(당시)의 여성이다.

당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막지 못했고, 끝내 이들은 요덕수용소에 갇히고 말았다. 그 후로 우리는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당한 1월 12일이 되면 재외 북한공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북한당국이 우리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방영실을 비롯한 이들 7명의 행방을 계속 수소문했다. 그러던 차에 2005년 11월 이들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난 다음 탈북한 분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방영실은 2000년 7월 4일 요덕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 남편 일행과 함께 수감됐는데, 불과 2개월 후에는 사망했다고 한다.

“방영실은 정말 불쌍하게 죽었지요. 들어올 때에는 그나마 뼈에 가죽이 붙어 있었는데, 나중엔 다리뼈가 완전히 말라붙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시체를 땅에 묻을 때 생전에 입고 있던 빨간 고르덴 잠바를 덮어주었어요.”

방영실이 러시아로 떠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중국 연지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의 비디오 작가와 인터뷰하면서 러시아에서 잡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면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겠어요.” 하고 힘없이 웃던 장면이 강제송환 당한 후에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됐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다.

‘요덕스토리’는 픽션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2006. 4. 통권 101호 권두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갇혀 있던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420여 명의 탈북자들이 이들에 걸쳐서 단식투쟁을 벌였고, 국내외 언론이 그 사실을 크게 보도한 끝에 얻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게다가 매달 80~90명 정도가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마지막 차례가 된 사람들은 5~6개월 후거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들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도 여러 해가 됐다. 6년 전(2001년) 우리가 난이(여: 22세)를 데려올 때 이용한 길이 바로 태국루트였다. 그 후로 줄곧 우리는 이 루트를 이용했다. 처음엔 방콕소재 한국대사관으로 들여보내면 대체로 2~3개월 후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

다. 그러다가 점점 현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근래에는 8~9개월이 예사가 됐다.

바깥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북적대다 보니 자기들끼리 싸움도 벌어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곧잘 벌어지곤 했다. 한창 공부하고 있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동안 누차 정부 관계자에게 입국 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지 공관에서 잘하고 있으니 NGO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NGO를 우습게 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NGO가 데모나 성명 발표 이외에 한 게 뭐가 있는냐”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사고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요 근거 없는 오만이다. 북한인권문제를 국제 공론화한 것도 NGO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 보호에 나서게 만든 것도 NGO요, 국내 입국 탈북자 1만 명의 상당수는 NGO활동가의 헌신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정부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재외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NGO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되 정부의 업적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탈북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입국시킬 수 있고, 그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07. 5. 통권 112호 권두언

“한국은 양심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베이징 올림픽 경기 대회를 앞두고 중국 공안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각지에서 숨어 살던 탈북자들이 속속 동남아 각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만 해도 현재 6백여 명이 억류당하고 있다.

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일단 불법 입국죄로 재판에 회부된다. 대체로 6천 바트(한화 약 2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45일간 구금된다. 그런 다음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린다.

한국행은 태국에 들어온 순서대로 실시되는데 매주 30명이 태국을 떠난다. 월평균 120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셈이므로 6백 번째가 떠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국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떠나기로 된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 만하다. 똑같이 수용소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지 10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에 따르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국제형사범죄자·살인범·위장탈출혐의자들처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호결정이 거부된 탈북자 6명은 모두 10년 이상 제3국에서 체류한 사람들이었다(한겨레 2004. 12. 23). 따라서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공연히 그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단지 제3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10년 전(1997년)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식량배급이 끊어져서 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시기였다. 이 무렵 수만 명이 강을 건너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뻥히 인신매매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강을 건넜던 것이다. 이 여성들은 산간오지로 팔려갔다. 외지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이 탈북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가 아닌가.

최근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억류당하고 있는 한 여성이 “내 양심에 따라 중국에서 10년 살았다고 말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양심이 안 통하는 나라입니까?” 하고 개탄하는 글을 보내왔다. 관련 부처와 국회는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 12. 통권 118호 권두언

대통령의 탈북자 사랑

2008년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후의 남북관계에 있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여러 관제를 제기한 데 이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한다. 그들이 불법입국자라는 신분 때문에 생기는 노동착취와 성착취, 단속과 처벌,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등 온갖 불이익을 겪고 있음이 알려진 지도 오래된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들에게 동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탈북자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인 일은 일찍이 없었다.

오랫동안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여겨지거나, 관계국들과의 우호 증진에 어려움만 야기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은 일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범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1996년 이래로 재외탈북자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써온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크게 환영하면서 새 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남아 제국, 특히 태국 이민국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입국시킬 것. 정부 관계자들은 수용시설의 미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앞서 들어온 탈북자들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중국생활보다도 동남아 수용소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천막을 치거나 산간오지의 폐교 건물에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데려와야 한다.

둘째, 제3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마련했을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범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바깥소식을 모르는 가운데 10년 이상 살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 현지 실정을 무시하고 이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셋째, 재외공관의 탈북담당자를 대폭 증원하되, 의료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탈북자의 상당수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북한에서 고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치료와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의 배치는 필수적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정부 각 부처가 구

체적인 조치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빈 공약으로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4. 통권 121호 권두언

UNHCR의 탈북난민보호

2008년 5월 22일 미국 라디오방송 VOA(미국의소리)는 올해 미국행을 택한 탈북자 22명의 절반인 11명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사무소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UNHCR 베이징사무소가 현재 보호하고 있는 탈북난민은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창립 이래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난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써 왔는데, UNHCR은 주요 타깃의 하나였다. UNHCR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직접보호에 나선다면 그들의 신변 안전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6년 9월 계간지 <생명과인권> 영문판을 발간, 국제사회에 널리 배포하면서 UNHCR 앞으로 10부씩 보내왔다. 그중 한 부는 UNHCR 자

료실에 비치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배부된다.

그리고 1998년 4월 김상헌 이사(당시)가 처음으로 제네바소재 UNHCR 본부를 방문, 상호협력을 다짐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1월 중·러 국경을 넘다가 러시아 국경 경비대원에 게 탈북자 7명이 붙잡혔을 때에는 그들의 구출을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UNHCR 제네바본부 및 모스크바사무소 사이에는 전화와 이메일이 숨가쁘게 오고 갔다.

그런데 UNHCR 베이징사무소는 오랫동안 탈북난민 보호에 나서지 못했다.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UNHCR 직원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지 못했고, 또 찾아온 탈북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중 국경지대 방문은 지금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2001년 6월 올 데 갈 데 없는 탈북자 7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UNHCR 베이징사무소로 밀고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국제여론을 의식해서 불과 3일 만에 이들의 출국을 승인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2004년 7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주선으로 UNHCR 베이징사무소와 연결된 탈북여성 한 명이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후로 2005년 3월에는 1가족 4명이, 2006년 6월에는 5명이, 7월에는 4명이, 2007년 4월에는 모자가 각각 UNHCR의 보호를 받게 됐다.

2008년 5월 21일에는 그중 한가족이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아쉽게도 딸 하나는 대기 중에 숙소를 이탈,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한다.)

UNHCR의 노력에 감사함과 동시에,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답게 좀 더 관대하게 탈북난민을 처우해주기를 기대한다.

2008. 6. 통권 123호 권두언

교포2세들의 탈북자 사랑

2008년 9월 10일 한 잘생긴 청년이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 찾아왔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를 돕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북한 지역 출신이어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부모님과과는 우리말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현재 캐나다에는 2백 명 정도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진 1996년 이후로 탈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캐나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7년 말 17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로 교포2세 출신의 변호사들이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게 돼 작년 4월

토론토에서 창립회원 3명으로 '한보이스'라는 인권단체를 결성했다.

'한'은 하나를 뜻하기도 하고 '한이 맺힌다'는 한(恨)을 뜻하기도 하며 '보이스'는 영어로 '소리'를 뜻한다. 따라서 '한보이스'는 탈북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자는 뜻인 것이다. 3명으로 시작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고등학생에서 시작해서 정년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4백여 명에 이르는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 찾아온 청년은 한보이스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이먼 박 변호사이다.

'북한 인민을 돕는 일에 캐나다인을 나서게 하자'는 표어 아래 재중 탈북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캐나다 정부 및 그 밖의 외국기관으로 하여금 탈북자 편을 들도록 로비활동을 벌이며, 탈북자 지원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한보이스의 목적이다. 그리고 2008년도의 주요 활동목표로 첫째, 재중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캐나다 의회가 채택하도록 로비활동을 벌일 것. 둘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탈북자들이 집중돼 있는 중국 동북지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캐나다가 탈북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조치를 위한 것 등을 설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이먼 박 변호사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앞으로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서신을 캐나다로 돌아간 다음 보내왔다.

해외 교포 2세들이 이처럼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여간 마음이 흐뭇한 게 아니다.

2008. 10. 통권 127호 권두언

北에서 천대받는 국군포로의 후손들

최근 국방부는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한국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때 일반가족보다 더 예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때 북한군 또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휴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 때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 중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5백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 보도를 접했을 때 필자는 7년 전(2003년)의 한 사건을 회상했다. 2003년 5월 중국 연결에서 온 편지 두 통이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 배달됐다. 6·25전쟁에 참전했는데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다음 50여 년을 적지에서 보내면서 통일의 날을 기다리다가 고향 땅에 뼈를 묻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탈북, 중국에 숨어 있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하는 사연이었다.

우리는 즉시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두 통의 편지 사본을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20여 일 후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로 이첩했다는 답장

이 국방부로부터 왔다. 필자는 외교통상부장관(당시 윤영관 서울대 교수)을 방문하고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언론사 중진들과의 공동작전이 주효했는지 두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는 한 달 후 한국으로 들어왔다. 후문에 의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안에 국군포로문제 전담부서가 생겼고, 국군포로 79명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국군포로를 구출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최근 밝혀졌다. 얼마 전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간사 한 명이 현지 활동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국군포로의 손녀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동남아 모국으로 이동시켜 한국대사관의 보호를 받게 했는데, 이 소녀의 길지 않은 삶은 기구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국군포로 출신인데 10여 년 전(1993년) 어느 날 작은아들과 함께 사라지면서 남은 가족들(큰아들 네)의 고생이 가중됐다. 나중에 이 소녀가 듣기로는 할아버지와 삼촌은 한국으로 갔다는 것이다. 자기 이름이 영희인지 희영인지도 모를 만큼 어린 시절부터 꽃제비(부랑아) 생활을 했다고 한다.

주로 시장바닥에서 구걸질·도둑질로 생활하면서 어린 목숨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을 보았는데 다행히 자기는 싸움을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학대와 천대를 외면하면서 대북인도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2010. 11. 통권 149호 권두언

탈북난민에 대한 캐나다 의원의 관심

2011년 10월 10일 캐나다 연방의회 전원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하원부의장인 배리 데볼린 의원이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심사를 장시간 협의했다.

데볼린 의원은 젊었을 때 부산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한 게 계기가 되어 한국과 두터운 인연을 맺게 됐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로는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에 적을 두고 양국의 우호친선에 힘써왔고, 지금은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에 참석한 후로 탈북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는 재중 탈북난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결의안을 발의, 캐나다 하원에 상정했다. 캐나다에서는 의원임기 중 두 번에 한해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데블린 의원은 그중의 한 번을 탈북난민을 위해 할애한 것이다. 같은 해 말 데블린 의원은 스티븐 하퍼 총리와 함께 관문점을 방문하고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

2010년 8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10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열었을 때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참석, 토의에 적극 참가했다.

2011년 3월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존 디펜베이크 인권자유수호자 상'을 받기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하자 데블린 의원은 현지단체인 한보이스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직접 자신이 발의한 결의안의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이고, 인민들은 정책실패에 기인한 굶주림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다가 잡히면 투옥·고문·처형에 직면하고, 중국에서도 인신매매·투옥·강제송환과 같은 인권 침해해 당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의해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결의안의 요지라는 것이다.

10월 10일의 방문 때 필자가 데블린 의원에게 이 결의안의 통과 여부를 묻자, 당초 5월 중에 표결에 붙여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총선거가 실시되어 무산됐다고 한다.

금후의 계획을 묻자 데블린 의원은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결의안을 빨리 제안할 수 있는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임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캐나다 하원에서는 추첨으로 결의

안 제안의 순서를 정한다.)

북한인권과 탈북난민의 곤경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캐나다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관심이 새삼 부끄럽기만 하다.

2011. 11. 통권 159호 권두언

김은주 양의 눈물 어린 호소

2012년 2월 23일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모임인 나우(NAUH)와 함께 재중 탈북자 북송저지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남북한 출신 고등학생·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일반인 등 백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앞까지 'Save My Friend'라고 쓰인 풍선을 들고 행진한 다음 대사관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팝페라 가수 박완 씨의 노래에 이어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의 가족, 탈북대학생, 경기여고생,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의 호소문 낭독이 차례로 이어졌고, 다시 박완 씨의 노래로 마무리됐다.

모든 호소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국내외 언론기관에 배부됐고, 탈북자 가족의 호소문은 중국어로 번역돼 중국대사관에 전달됐는데 번역 작업을 위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간사·인턴·자원봉사자들이 한밤중까지 일해야 했다. 집회의 성격상 분위기는 시중 진지하고 무거웠는데, 특히 탈북

대학생 김은주 양(서강대 4학년)이 울면서 읽은 호소문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중국에 있었던 유년시절이 그리웁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또래 한족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다마까기·제기차기를 즐겼던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안(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고마웠습니다. 중국은 제가 북한 다음으로 오래 산 곳이자 제2의 고향입니다.” 4년 후 김은주 양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 당했고, 구금시설에서 온갖 천대와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내가 나서 자라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나라 북한에서 그 어디에서도 받지 않았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잡혀 갔을 때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김은주 양에 따르면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자신의 경우도 북송 당하면 이런 고초를 겪는데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힌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분들은 북송 당하면 최악의 경우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이라곤 부모형제가 함께 살고 싶어한 것,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어서 김은주 양은 “탈북자들의 억울하고 가련한 처지를 생각해서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말 것을 눈물로 15억 중국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끝맺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사랑하는 김은주 양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 3. 통권 162호 권두언

쥐약 봉지를 버리는 탈북여성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난민구조사업단이 2012년(11월 30일 현재) 중국으로부터 동남아로 이동시킨 탈북동포는 모두 34명이다. 성인 남성은 3명이고 성인 여성은 18명이며 청소년·아동은 13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동 중 중국 공안에게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

얼마 전에 현장 책임자가 동남아 모국에 일행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려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일행 중 한 여성이 옷 속에서 약 봉지를 꺼내면서 “이제 이걸 먹을 일은 없겠군요.” 하더라는 것이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 당하게 되면 먹고 죽으려던 쥐약 봉지였다. 그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여성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고 한다.

이 여성은 그동안 몇 번 중국에서 잡혀 북한으로 송환 당했고, 노동단련대와 교화소에서 여러 해 곤욕을 치룬 바 있다. 그래서 또 잡히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살아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쥐약을

먹고 스스로 죽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 탈북자들이 구금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는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지 오래다. 2012년 2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탈북자강제송환반대 시위 때 김은주 양(서강대 4학년)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내가 나서 자라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나라 조선에서 그 어디에서도 받지 않았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으로 잡혀 갔을 때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김은주 양에 따르면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자신의 경우도 북송 당하면 이런 고초를 겪는데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힌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차별을 받게 된다고 한다.

탈북동포처럼 죽을 고비를 넘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선(死線)을 넘은 사람이라고 한다. 사선이란 감옥 또는 포로수용소 둘레에 쳐진 선으로, 이를 넘어서면 총살하도록 규정된 한계선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온갖 학대를 가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만드는 북한의 권력집단은 스스로 북한 땅을 거대한 감옥·포로수용소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동포사랑은 말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생명을 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게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활동원칙 중 하나다. 올해도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34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2012. 12. 통권 171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2013년의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2013년에 우리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일어났다. 구호금 1억 원이 모여져서 중국에 숨어 있던 탈북동포 50명을 동남아 모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온 것이다.

우리가 탈북동포 구출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 10월이었다. 그해 9월 우리가 지원하던 탈북청소년 5명이 중국 대련의 은신처에서 공안원에게 잡혀갔는데 그중 2명은 자력으로 도망쳐 나왔고 나머지 3명은 협상으로 풀려났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어렵게 돈을 모아 한국으로 데려왔다.

2004년 6월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탈북소녀 3명(17세 2명·15세 1명)의 구출 요청을 받고 모금을 시작했으나 잘 모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뉴스레터 머리말에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더니 동아일보의 방형남 논설위원이 그의 칼럼에 인용해주셨다. 그날 밤 그 칼럼을 읽은 호야선교회의 강

경호 대표가 3명의 구출을 위해 1천 2백만 원을 회사해 주셔서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3명 중 1명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2명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상은 기억에 남는 한두 사례에 불과하고 연평균 10여 명의 탈북동포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2010년 1월 여성회원 3명(이미숙·엄영선·김영자 제씨)가 재중탈북난민구호사업단을 조직하면서 탈북동포 구출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에는 15명을, 2011년에는 27명을, 2012년에는 35명을 각각 구출했는데 2013년에는 50명을 구출하게 된 것이다.

5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두만강·압록강을 건넜는데 인신매매단에 잡혀 벽지에 팔려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우리에게 구출을 호소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중에는 10대·20대도 있고 40대·50대도 있다.

중국 공안의 엄중한 감시 속에 넓으나 넓은 중국대륙을 가로질러서 동남아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야간에 15시간씩 달리고 나면 녹초가 된다. 4세·7세·9세·12세 어린이들이 50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많은 분들이 구출캠페인에 참가해 주셨는데 특히 2천 9백만 원을 네 차례 나누어 회사해주신 김태경 선생, 1천만 원을 이번에도 선뜻 보내주신 강경호 대표, 1천만 원을 쾌척하신 에덴교회 목사님, 이벤트를 통해 1천 3백만 원을 모금한 외국인 모금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4. 1. 통권 183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이어지는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

2014년 뉴스레터 1월호 머리말의 제목은 '2013년의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이다. 2015년에도 이 제목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했는데, 11월 중반까지 탈북난민 구출비용이 모이지 않아 50명 구출이 어려워 보여 실망이 컸다. 하지만 11월 말, 일가족 3명의 구출을 요청하는 서신을 읽고 동아일보의 방형남 논설위원이 '탈북자 구하는 것이 인권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 인용해 주셔서 칼럼을 읽은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6,600유로를, 포항의 김세환 어르신이 330만 원을, 포항의 성현모·남현희 부부께서 350만 원을 기부 해주셔서 일가족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고, 12월에만 12명을 구출해 2014년에도 50명(아동 8명, 청소년 7명, 성인 여성 29명, 성인 남성 6명)을 구출해 기적을 일궈낸 제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탈북난민구호사업단을 조직해 탈북동포 구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룬 성과이다.

탈북난민 구호활동의 처음은 러시아로 나온 탈북자들의 구출로 시작됐

다. 1996년 9월 러시아에서 은신중인 북한난민 리동성 씨를 알게 되어, 통일부장관 앞으로 리동성을 한국대사관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1998년 5월 4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첫 케이스이다.

1999년 8월 시민연합은 탈북동포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동북 지방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장백산 밑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탈북남성,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과도 같았다. 그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덜덜 떨면서 “나를 공안에 넘기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굶다가 병으로 사망하자 남동생 한 명을 데리고 탈북해 중국 땅을 밟은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동생마저 중국 공안에 쫓기다 서로 헤어져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동생을 찾을 수 없어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탈북남성을 도울 길이 막막해 일행은 부둥켜안고 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탈북난민 구출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중국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인 동남아로 1만 킬로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택시로, 기차로, 버스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50번째로 구출된 28살의 탈북여성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저 팔러가는 것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라고 계속 물었다고 한다. 그 여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구출캠페인에 참가해 주셔서 1억 원이 넘는 구호금이 모아

졌다. 작년에 이어 1천만 원을 기부해 주신 강경호 대표, 김연수 선생, 김재욱 선생, 김태경 선생, 나승희 선생, 박진환 선생, 이택준 선생, 김태훈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박범진 고문, 신각수 고문, 박현 이사, 이미숙 이사, 임유철 이사, 외교통상부배우자회, 고려대 리베르타스, 텀블러 캠페인을 통해 1천 1백 7십만 원, 2백만 원을 모금한 L4동아리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5년에는 100명을 구출하는 기적을 이루기를 바란다.

2015. 1. 통권 195호 머리말 / 사무국장 김영자

“밥보다 자유 때문에 탈북”

모 선교회가 간행하는 뉴스레터 최신회(2015년)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탈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을 “밥보다 자유 때문에 탈북”이라고 달았다.

그 무렵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중국 모처에 숨어 있는 탈북 일가족(부부·딸·아들)에게서 구출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밥보다 자유 때문에 탈북”했다는 내용이었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무산에서 태어나 무산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은 버스운전입니다. 무산에서 청진까지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버스운전을 하며 중국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버스운전수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점점 많이 들으면서 북조선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

다 훔치고, 경비대는 강짜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빼앗긴 사람은 울고 그리고 또 훔치고... 북조선은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버스운전수로 일하며 어디가 경비가 있고 또 어디가 강 넘기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데 꼬박 일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경비대에 돈을 주고 안전하게 넘고 싶었지만, 이제는 경비대도 돈만 받고 신고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길 얇은 곳을 찾아 가족 모두가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아내와 내가 각자 아이 하나씩 업고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넘어 중국에 도착하고 쉬지 않고 달리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길을 두 아이 데리고 걷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좋은 분을 만났으니 우리 가족이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도와주신 좋은 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절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재중북한난민구호사업 후원자 여러분께 보내면서 성금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모금 목표액이 모여져 이 가족 4명은 무사히 중국과 동남아국가와의 국경을 넘어 지금은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가족 4명과 함께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 해안포대에서 근무하다가 결핵에 걸려 제대하게 된 20대 여성이 있다. 이모를 따라 중국으로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우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병을 고쳐 부모님을 모셔오는 게 꿈이라고 이 여성은 말했다. 탈북동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015. 7. 통권 201호 머리말 / 이사장 윤현

2015년의 기적: 북한난민 구출 100명을 넘기다!

2014년 뉴스레터 1월호 제목은 ‘2013년의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이고 2015년 1월호 제목은 ‘이어지는 기적: 탈북자 50명 구출’이다. 2015년 총회에서 북한난민 100명을 구출하겠다고 천명하며, 2016년 1월호에 다시 기적이란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는데, 12월 31일 밤, 3명의 북한난민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것을 포함해 2015년 112명의 북한난민을 구한 우리의 희망이 기적으로 나타났다.

북한난민 한 사람 구출하는 비용은 최하 2백만 원이 소요되고 은신처도 운영해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곳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고, 혹시 공안에 잡히더라도 하면 벌금 등이 더 들어가 100명을 구출하려면 적어도 2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초부터 북한난민의 도움요청은 물밀 듯이 밀려오고 모금을 하기가 너무 벅차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어디선가 도움

을 준다고 했던가! 5월에는 서병길 밴쿠버 민주평화통일협회장과 김두열 간사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이성주 군과 슈퍼맨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한인사회에서 북한난민을 구할 수 있는 모금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6월에는 텀블러팀에서 달리기 캠페인에 참가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에서도, 독일과 미국에서 성금을 보내왔다.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주어 온통 감사하고 행복하다.

12월 24일 6명의 북한난민 구출을 요청하는 긴급서신을 보내고 두 팀으로 나누어 쉬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다. 한 팀이 먼저 동남아 국경을 넘었지만 경비가 삼엄해 또 다른 국경을 넘지 못하고, 숨고 이동을 반복하다 31일 밤 자정이 다 되어서 일가족 3명이 안전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 가족은 올해 11월, 자신과 두 딸, 동생가족 3명이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는 살얼음이 낀 강을 건너 공안을 피해 도망치다 큰딸과 동생, 동생의 작은딸을 잃었다고 했다. 이렇게 북한난민은 가족을 잃고, 생사를 넘나들며 자유를 위해 오늘도 강을 넘는다.

이렇게 2015년 1월 8명, 2월 2명, 3월 16명, 4월 12명, 5월 5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18명, 9월 7명, 10월 13명, 12월 7명 등 북한난민 112명(아동 23명, 청소년 7명, 여성 66명, 남성 16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북한난민을 구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모금으로 힘든 한해였지만, 우리를 감동시킨 후원자께서 보내온 메시지를 적어본다.

“음지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천사들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16. 1. 통권 207호 머리말 / 사무국장 김영자